임상빈과 잠재풍경

임상빈은 다양한 모양의 풍경에 잠재한 '**원형 구조(porta-structures)**'의 근본 원리와 적용 실제를 모색합니다. 그의 작업은 여러 매체를 통해 **사회의 외부 풍경**과 **개인의 내면 풍경**을 재해석하며, 풍부한 예술적 담론을 제공합니다.

그는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학력은 예원학교(미술과), 서울예술고등학교(서양화과), 서울대학교(서양화과 학사), 예일대학교(회화와 판화 석사), 컬럼비아대학교 티처스칼리지(미술과 미술교육 박사)입니다. 뉴욕(7 회), 서울(9 회), 부산(6 회) 등 여러 도시에서 활발히 개인전을 개최해왔으며,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노스캐롤라이나 미술관, 줄 콜린스 스미스 미술관, 웨스트 컬렉션, 아티움 미술관 등 주요 기관뿐 아니라, 우리은행, 캐논 미국 본사, AT&T 본사, 도이치 뱅크 쿤스트, UBS, 싱가포르 은행 등의 기업 컬렉션에 소장되기도 했습니다.

21 세기 인공지능 시대, '사람다움의 가치'에 대한 성찰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는 '**잠재 풍경(Latent Scape)**'의 개념에 주목하고, 그 이론적·실질적 차원을 연구하며, 이를 통해 보다 행복한 개인과 사회를 꿈꿉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영상과 사진부터 전통적인 회화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시각 언어를 폭넓게 탐구합니다. 그의 전시에서는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생각을 촉발하는 풍경**을 창조하는 영상 및 사진 작업과, 다양한 연상이 가능한 **원형질(protoplasmic) 형상**을 촉각적 노동의 가치 아래 시각화한 회화 작업을 선보입니다. 그의 예술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유도하며,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